

14학년도 6월 A/B형

By. 김 승 리
(자료에 대한 의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8의 발문을 통해 지문구조가 예측 가능했음!

: ◆ ‘지문’을 읽으면서 예상했던 지문의 구조를 느끼고, 반대로 문제를 예상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A형 <과학>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라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90~780 nm* 정도인데 보라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직경 0.1~1 nm 정도), 먼지 미립자, 에어로졸*(직경 1~100,000 nm정도) 등과 부딪치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일리(Rayleigh) 산란’과 ‘미(Mie) 산란’으로 구분된다.**

① 레일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그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따라서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보라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라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라빛보다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만약 태양빛이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에 의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잘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산란되어 하늘의 파란빛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② 미 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10보다 큰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을 말하는데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등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 산란으로 설명된다. 구름 입자(직경 20,000 nm 정도)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면 모든 무지갯빛이 혼합되어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 나노미터 : 물리학적 계량 단위. 1 nm = 10⁻⁹m.
- * 에어로졸 : 대기에 분산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입자.

‘반비례’ 혹은 ‘비례’라는 키워드는 출제자들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한 좋은 장치로 자주 이용된다. =>
* 문제의 선지에서 활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

#18의 발문을 읽고, 이미 지문 구조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 2문단과 3문단이 “**문단별 구분**” 구조를 따를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구분되므로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을 기준으로 두 산란현상 사이에 차이점 및 공통점이 등장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두 내용이 서로 대조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2문단과 3문단이 ‘문단별 구분’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동일한 유형 :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표제와 부제 찾기’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는 ‘부제’를 찾기 위한 문제이고 여기서의 ‘부제’가 결국 지문의 ‘중심내용’이 된다.

16.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란의 원리와 유형 (정답)
(원리는 1문단 5~7번째 줄 - ‘태양빛이, ~ 산란이라 한다’에 드러나 있으며 유형은 레일리 산란/ 미 산란으로 각각 2문단과 3문단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
(마지막 문단에 ‘무지갯빛’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미 산란을 통해 산란된 빛에 의해 구름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
(1문단 4번째 줄에서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반비례관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이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이므로 윗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
(지문 내에서 ‘미 산란’과 ‘레일리 산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므로 미 산란이 단독적으로 지문의 중심 내용이 될 수 없다.)

⑤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

(가시광선이 분해되는 범위[붉은빛~보라빛]가 드러난 것이지 가시광선의 종류가 지문에 존재하지는 않으며, 산란의 세기는 지문에 드러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의 세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란의 세기가 윗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

●.● 애초에 지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지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온 이상 ‘① 산란의 원리와 유형’에서 ‘유형’이라는 글자만 확인해도 이미 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즉, 앞으로 우리가 ‘윗글의 중심 내용’ 혹은 ‘윗글의 표제와 부제’와 같은 문제를 접하게 될 경우 찾아낸 지문의 구조를 고려하여 답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좋은 문제)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추론’ 문제의 경우 본질적으로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와 다를 바 없지만, 선지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선지들을 통해서 앞으로 만나보게 될 ‘추론’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될지 예상해보자!

① 가시광선의 파란빛은 보라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1문단 5번째 줄에 이미 ‘진동수는 보라빛이 가장 크고’라는 내용이 드러나므로 어떠한 빛을 보라빛과 비교하더라도 보라빛보다는 진동수가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무조건 맞는 선지이다.

②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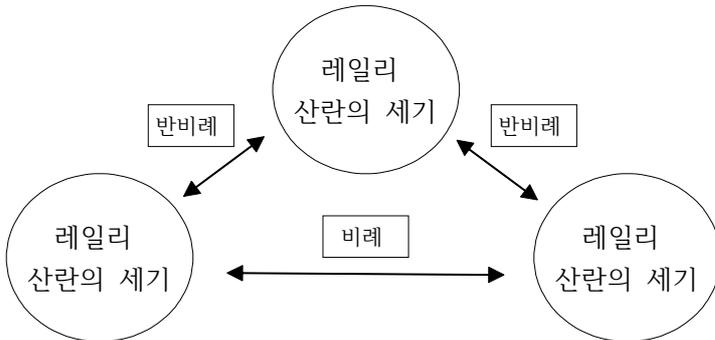
(1문단을 보면 태양빛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이 혼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나 있다. 즉, ‘태양빛을 다시 모으는’ 것은 가시광선을 다시 혼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맞는 선지이다.)

③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 (정답)

(2문단 6번째 줄을 보면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라빛이 가장 강하겠지만’이라고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틀린 선지이다.)

④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

(1문단 4번째 줄을 보면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라는 내용이 있고, 2문단 2번째 줄을 보면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드러나 있다. 따라서 파장과 반비례관계에 있는 빛의 진동수와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서로 비례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16배가 된다.)



⑤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달의 하늘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날 수 없다. 사실상 무의미한 선지.)

●● 여러분에게는 이 문제가 쉬웠는가? 그렇다면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인 선지 ③이 쉬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추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그리고 출제자가 단순히 선지의 순서만 바꾸어도 오답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선지 ①,②,③은 일반적인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지문에서 확인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 ④의 경우 지문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만 접근할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선지 ④를 찾기 위해서는 특정 대상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두 대상은 서로 비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선지 구성이 ‘추론’ 문제의 전형적인 본질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선지의 순서이다. 예를 들어 선지 ③과 ④의 순서를 바꾸어 본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지 ③을 보고 혼란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고, 이미 고민해야만 하는 선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선지들을 볼 때도 청량(?)한 기분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애매한 선지**’가 등장하는 경우, 여러분은 그 선지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넘겨보고, 나머지 선지 중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는 단순히 무책임하게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선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에서 정답이 쉽게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애매하면 일단 넘어가라!**’

1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의 산란 현상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A 도시에서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비가 오기 전 대기에서는 직경 10~20 nm의 먼지 미립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하였는데, 비가 온 후에는 그것이 관측되지 않았다.

(나) B 도시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은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 높은 하늘을 보니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 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입자의 크기가 파장의 범위 (390~780nm)의 1/10보다 작고, ‘더 파랗게’ 보이므로
‘레일리 산란’

‘레일리 산란’

3문단 2~3번째 줄의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 산란으로 설명된다’는 내용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 (10,000nm)라는 것을 고려하면
‘미 산란’

- ①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 것은 미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겠군.
(미 산란이 발생했다면, 하늘이 파랗게 보일 것이 아니라 구름이 흰색으로 보여야 한다.)
-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 산란이, 비가 온 후에는 레일리 산란이 일어났겠군.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10~20nm로 파장의 1/10보다 작기 때문에 미 산란이 발생할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③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 (정답)
(낮은 하늘[지표 근처의 대기]에 직경이 10,000nm인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으므로 맞는 선지이다.)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레일리 산란 때문이겠군.

(구름이 희게 보인 것은 레일리 산란의 영향이 아닌 미 산란의 영향이다.)

⑤ A 도시의 비가 온 후의 하늘과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모두 미 산란이 일어났겠군.

(A도시의 비가 온 후의 하늘은 더 파랗게 보였으므로 미 산란이 아닌 레일리 산란의 영향이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 [1]

●.● 지문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18번 문제의 발문만을 읽고 지문의 구조가 ‘문단별 구분’ 구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며 실제로 그 구조가 ‘문단별 구분’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기>의 (가)를 읽는 순간 ‘레일리 산란’이므로 자연스럽게 2문단으로 눈이 향해야 할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를 읽는 순간에는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2문단과 3문단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의 차이를 고려하고 읽었을 것이므로 <보기>를 읽으면서 ①~⑤ 선지의 내용을 어렵잖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18번 문제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습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보기>가 포함된 문제들 중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발문을 통한 지문 구조의 예측’과 ‘지문을 읽으면서 실제 지문 구조의 확인과 이를 통한 문제의 예측’을 병행하는 습관을 앞으로도 유지해주시기 바란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 [2]

●.● <보기>가 등장하는 문제의 경우, <보기> 안의 내용은 반드시 지문의 내용과 대응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내용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대응되지 않는다면, 굳이 <보기>를 문제에 등장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문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번 문제의 경우, <보기>가 지문과 확연히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응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이와 달리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내용적으로 확연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때에는 ‘Key-Word’를 찾아야 한다.

‘Key Word’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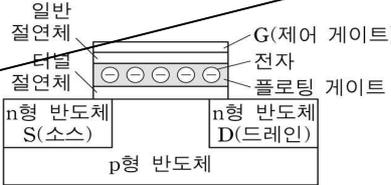
: 예를 들어, 지문의 내용이 ‘사회의 계급구조’에 관한 내용이고 <보기>가 ‘개미사회의 역할분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미들 각각의 ‘역할’이 사회의 ‘계급’과 대응되는 구조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문과 논리적으로 대응되는 <보기>안의 단어들이 ‘Key-Word’의 역할을 한다.

#21의 발문을 통해 지문구조가 예측 가능했음!

: ◆ ‘지문’을 읽으면서 예상했던 지문의 구조를 느끼고, 반대로 문제를 예상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A형 <기술>

플래시 메모리는 수많은 스위치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스위치에 0 또는 1을 저장한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는 상태를 1,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정의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의 반도체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다른 한 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 쪽으로 이끌리게 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의 같은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 전자가 흐르기 쉽다. 이렇게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셀의 값이 1인지 0인지를 판단한다.

플래시 메모리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 데이터가 저장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 p형 반도체로 이동한다.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플로팅 게이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0의 상태가 된다.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터널 절연체를 넘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가 저장된다. 이것이 1의 상태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메모리이다.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음(EPROM의 장점) 반면, 데이터를 지울 때 칩을 떼어 내어 자외선으로 소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EPROM은 전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지만(EEPROM의 장점),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EEPROM의 단점)하다. 플래시 메모리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며,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다.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분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21의 의 발문에서 ‘전압이 가해질 위치’라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지문 속의 ‘전압을 가한다’는 반드시 문제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

#21의 발문을 통해 이미 지문의 구조가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했다면 ‘두 가지 과정’이 각각 2문단과 3문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가지 과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과정 1과 과정 2가 ‘문단별로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 실제로 지문 구조는 3문단과 4문단에서 각각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지문의 구조가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상황**이므로 “순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

EPROM의 장점

EEPROM의 장점

이 지문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드러남
EPROM과 EEPROM을 개선하여 그 둘의 장점만을 합한 ‘플래시 메모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야 함!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1문단)를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두 가지 과정을 알려주었으므로 **적절! (정답)**

②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EPROM과 EEPROM,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설명해 주긴 했으나 '사용 방법'을 알려준 적은 없으며 대상의 장점을 설명한 뒤에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절!**

③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세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대상의 크기'를 기준으로 설명한 적 없음! **부적절!**

④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 것은 맞지만 "제작 원리"(어떻게 만든다~)를 알려준 적은 없음. **부적절!**

⑤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EPROM과 EEPROM의 단점을 나열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개선한 '플래시 메모리'를 제시했으므로 **부적절!**

20. 밑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 '사라진다'고 보기보다는 S로부터 D 쪽으로 전자들이 이끌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
=> 일부 학생들은 헷갈릴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함!

②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 어려워서가 아니라 "찾기가 복잡"했기 때문에 애매했을 수 있음! 일단 Pass~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 '데이터 지우기'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부분은 3문단과 5문단이다. 그런데 3문단에서는 "자외선에 노출"이라는 부분이 아예 언급된 적이 없고, 5문단에서 EPROM의 경우, 데이터를 자외선으로 소거하는 게 맞지만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EEPROM의 장점을 취하여 메모리를 '전기를 이용하여' 쓰고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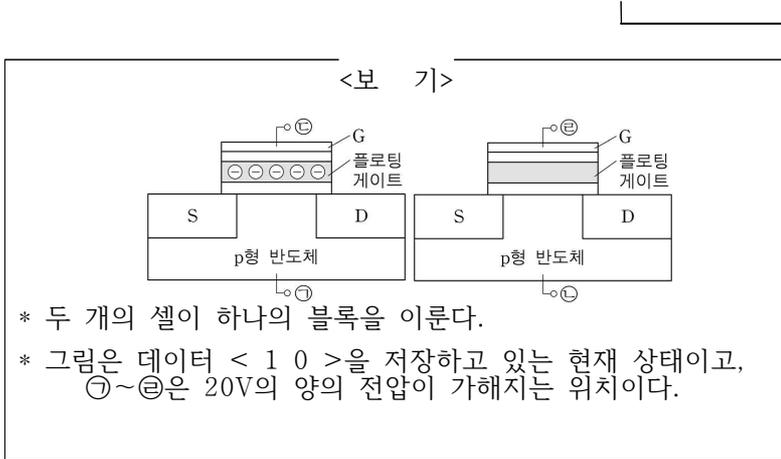
④ E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개선하여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 EEPROM의 단점이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이는 셀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적절!**

⑤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한다.

=>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 중 하나가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

21. 윗글과 <보기>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 1 0 >을 < 0 1 >로 수정하려고 할 때,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질 위치가 옳은 것은? [3점]



지문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던 부분!
'단계별로'라는 단어 때문에 지문의 구조가 어떠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보기>와 지문간의 대응지점

- 1) 발문에서 데이터 <10>을 <01>로 수정하려고 한다고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지우고 쓰는' 과정을 물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함.
- 2) <보기>의 상태가 <10>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그와 동시에 그림을 보고 눈이 2문단을 향해야 하고, ⊕의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 있으므로 '1'을 나타내고, ⊖의 플로팅 게이트에는 전자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0'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
- 3) '20V의 전압을 가한다'는 표현을 통해 3문단으로 눈이 가야함.
- 4) 선지의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데이터를 지우고' '데이터를 쓰는' 과정이라는 것이 대응되어야 함!

=> Go Go!

==> 3문단을 보면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약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모든" p형 반도체에 20V를 가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

==> 4문단을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약 20V, p형 반도체에는 0V의 전압을'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과 달리 ⊖의 p형 반도체에만 전압을 가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

==> 따라서 1단계의 경우 "모든" p형 반도체에 20V를 가하므로 ⊕, ⊖에 가해야 하고 2단계의 경우 ⊖에만 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①	1단계	2단계
②	⊕	⊖
③	⊖	⊕
④	⊕과 ⊖	⊖
⑤	⊖과 ⊕	⊖

(정답)

#17의 발문을 통해 지문의 구조가 예측 가능했음!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인문>

[1문단]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①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②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2문단]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③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④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문단]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람은 **⑥‘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⑦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4문단]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문에서 “~는 ~라 한다.”의 패턴으로 자주 등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과 같은 문제에서 선지로 자주 활용되므로 미리 인지해 가며 글 읽기.

내용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예’를 들어보이므로 앞문장과 사례와의 대응을 통해 글을 이해해야 해!

이미 우리는 발문을 통해서 지문의 구조가 ‘대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등과 같은 접속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두 부류로 지속적으로 나누어가며 글을 읽어야 해!
또한 실제로 이 지문은 ‘본질주의 vs 반본질주의’의 지문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그와 동시에 “대조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문단 안에서 서로 “비교”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함!
=> 같은 해 9월 B형 [인문] 지문 확인!
=> 동일한 구조.

글의 구조가 분명 ‘대조 관계’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중에서 **무게중심이 ‘반본질주의’에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3문단의 경우 ‘본질’에 대응되는 ‘정의’가 **약정적이고 불완벽할 수밖에 없으므로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문단의 경우에는 서양의 철학사, 즉 ‘**본질을 찾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와 같이 ‘대조 관계’가 중심인 지문에서 ‘특정 사상이나 인물들 간의 대조관계’가 존재할 때에도 어느 한 쪽으로 글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며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여러분은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본질주의” VS “반본질주의”의 지문구조를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런데”를 중심으로 논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반본질주의”는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반본질주의는 “본질이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본질주의”의 관점에 더욱 적합합니다.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불변의 고유성”이라는 단어는 반본질주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전형적으로 글을 얼마나 “받아가며” 읽는가를 묻는 선지입니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대조 관계”인 경우, **출제자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묻기보다는 “둘 사이의 공통점”을 묻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 본질주의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2. 반본질주의는 그것을 “언어약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두 사상 모두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은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는 선지의 내용과 대응됩니다. 즉, 해당 내용은 반본질주의 뿐 아니라 본질주의에도 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본질주의는 “본질주의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라는 선지의 내용은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 “객관적으로 실재”라는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그럴지, “본질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본질주의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이 인간의 언어약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상인데, 여기서 “언어약정”과 “객관적으로 실재”라는 표현은 상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실제로 해당 문항은 A에 관해 묻고, 선지 구성은 B를 집어넣는 아주 “**알팍한**” 수준의 선지 구성입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그러나”, “반면”, “하지만” 등과 같은 접속사를 기준으로 [대조관계]를 파악하고 글을 읽어 나간 학생들이었다면 이런 속임수는 웃으면서 극복해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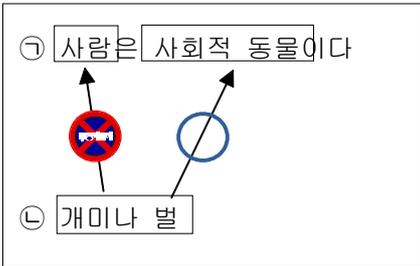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 떠오르는 문항이 없으셨나요? 이 문항에서는 “문맥상 ㉠과 ㉡의 관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례”를 묻는 문항과 동일합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B형 [인문지문]의 22번 문항의 경우,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봤죠. 하지만 18번 문항이나 올해 6월 21번 문항이나 결국에는 **주어진 선지의 내용을 “문장에 대입”함으로써 해결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이고, ㉡은 ‘개미나 벌’입니다. 우선, 이 둘 간의 관계를 3문단의 “문맥”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간의 관계는 위와 같은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시 선지에서 주어져 있는 ㉡을 ㉠에 대입하여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① 칼은 [1. 가위는 아니지만] [2. 자를 수 있는 도구는 가능] 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② 64세인 사람은 [1. 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실 애매합니다!)] [2. 65세 이상인 사람은 아님]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③ 어머니의 여동생은 [1. 이모이면서] [2. 어머니의 여자 형제]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헤엄칠 수 없는 고래는 [1. 고래이면서] [2. 포유동물]입니다. ③번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부적절합니다.

⑤ 흑연 심은 [1. 연필이라고 볼 수 없지만] [2.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도구도 아님]이므로 부적절합니다. (혹시라도 흑연 심을 통째로 필기도구로 쓰는 분은 없죠? 혹시 있으면 연락하세요! 연필 사 드림 ㅎㅎ)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사실 <보기>가 다소 거칠어요. 무슨 말이나. 이전부터 강조해왔듯이 <보기>와 지문은 항상 “대응”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해당 <보기>를 읽고 지문과 대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보기>를 읽고, 실전에서 지문과 대응하라고 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우리들의 눈에 보이게끔)” 지문과 <보기>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엄격한”과 같은 수식어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혼돈을 주기 위한 내용일 뿐입니다.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하겠네.

==>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본질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반본질주의자는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인간의 언어 약정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므로 적절합니다.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하겠네.

==> 반본질주의자는 애초부터 “근원적 속성”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원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울립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정답)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19번 문항 설명 계속!)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문장을 살펴 볼까요?

“이순신은 악덕한 왕이었다.” 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당연히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순신은 ‘악덕한’ 인물이 아니에요!”라고 대답한다면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오히려 “이순신은 왕이 아니라 ”장군이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죠. 마찬가지로 해당 선지에서도 ”근원적 속성이 있다/없다“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근원적 속성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사고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리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선지 구성은 수능국어에서 종종 튀어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의해 둡시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하겠네.

==> 여러분이 갖춰야 할 두 가지 태도를 함께 묻는 선지입니다.

- 1) 글을 얼마나 “받아가며” 읽는가.
- 2) “대조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한 지문의 경우, 출제자는 차이정보보다는 “공통점”에 더욱 관심이 많다!

우리는 이미 2문단을 글을 “받아가며” 읽음으로써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은 상황입니다. 정답/오답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해당 선지를 ⑤번이 아닌 ①번 혹은 ②,③과 같이 정답보다 위에 있는 선지에 이를 배치했다면 평소에 글을 “받아가며” 읽은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고민할 만한 선지였습니다. 부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받아가며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항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 출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_-;

발문을 통해 지문구조의 예측 불가능했음!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사회>

[1문단]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2문단]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능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차별 위험도 커졌다.**)

[3문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4문단] (**저작물 이용자들이 차별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5문단] **한편** ㉠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자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여러 장애”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2가지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를 “개선”할 것이라는 예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장애 1에 대한 해결책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

- 장애 2에 대한 해결책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



두 해결책 모두 “그러나”를 중심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올해 6월 모의평가 B형 [인문 지문]을 떠올렸다면 훌륭합니다! (개선 - 접속사 - 한계)의 관계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관점과 대치되는 관점! => 해당 지문의 구조는 크게 보았을 때 “대조 관계”를 띠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2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1문단에서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지를 다시 살펴보자면 “한 축”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머지 한 축은?”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5문단)”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2~4문단)”과 더불어 지문 구조가 “대조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1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디지털 환경 이전)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사고의 흐름이 ①번 선지를 보고 1문단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저작물의 공정 이용’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물론 적절합니다.

(전 왜 14학년도 9월 B형 25번 문항의 ④번 선지가 떠오를까요..? 같은 생각 한 사람!)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 완벽히 헛소리입니다. ④문단을 보시면 “누구의 저작물이든 ~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라는 표현이 드러나 있으므로 ⑤번은 부적절합니다. (정답)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면 “~와 달리, ~뿐만 아니라”와 같은 표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민감도”가 해당 선지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혹은 고민하지도 않고 정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미 여러분들은 ①~④에서 확신을 얻고 선지를 지웠을 것이므로 ⑤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답으로 체크했어야 합니다!

22. ㉠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 “공유 캠페인 이런 거 하지 말자!”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완벽한 헛소리! 넘어가죠. (저는 이런 선지를 보며 출제자들이 선지를 구성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곤 합니다..ㅠㅠ)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역시 ㉠의 관점이 아닌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의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A에 관해 묻고, B를 집어넣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군!”**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정당하게 주자”는 취지의 선지이므로 지문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의 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 이 선지 읽다가 ‘비례-반비례 관계’ 떠올린 사람! ㅎㅎ 훌륭합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는 의미겠죠?!^^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 오히려 ㉠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캠페인이 확산될 경우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죠. 넘어갑시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 ①: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②: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문에 항상 ①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문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②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지문과의 대응지점]

A는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블로그에 자료를 올림. B는 그와 같은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문을 이용.

=> B의 행위에는 문제가 없음.

최근에 A는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된다”고 표시하고 동영상을 올림. 그런데 B가 그 동영상에서 A가 자신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함.

=> B는 따로 ‘자유 이용 허락’ 조건을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A의 행위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 안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출제자는 이걸 묻고 싶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완.벽.해.요.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네. 그래요.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줄여 주셔서.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A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일정한 표기 조건을 지킨 B에게 사용료 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합니다.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인지 / 공정 이용이 아닌지는 <보기>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표기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에 해당한다면 B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절합니다.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1) 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접근할 경우

: 현재 우리는 B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B는 A에게 “공정 이용 규정”을 바탕으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해당 선지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2) 명제의 ‘이’를 적용할 경우

(14학년도 9월 A형 [과학 지문] 해설 자료 16번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있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겠군.)

==> “공정 이용 규정”은 “사용료 지불”과 같이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하자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있기에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지는 부적절합니다.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겠군.

==> A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가하는 사람이므로 적절합니다.

#29의 <보기>를 통해 지문구조를 어렵듯이나마 예측한 당신은 짱짱맨!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과학>

[1문단]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2문단]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3문단]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4문단]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입체 지각은 ~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 지문의 구조가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하지만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를 기준으로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애초에 글의 서두에서 제시한 질문이 “**사람이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 있었을까?**”였고,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세계를 3차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단안 단서]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단안 단서”가 4개의 유형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적어도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는 부분을 통해 “**단안 단서**”가 문단별로 구분될 것을 예측합니다!
=> 14학년도 6월 A형 [과학지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각각의 단안 단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본래의 개념 간의 “대응”을 통해 글을 읽으셔야 합니다!
(15학년도 6월 B형 [인문지문] 떠올리기!)

Ex) 결 기울기
=> “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 ”
↔ “ 들판에 만발한 꽃 ”
=> “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 ”
↔ “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꽃이 작아짐 ”

28. 밑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4문단을 첫 부분을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적절**합니다.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디. **적절**합니다.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각주”도 꼼꼼히 보라는 취지의 선지였습니다. 1문단을 보시면 “양안 단서는 ~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시차”는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라고 각주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두 상을 조합해야 한다.

==> “직선 원근”은 “단안 단서”이므로 “두 눈에서” 두 상을 보내고 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 4문단을 보시면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가 지의 거리를 파악”한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3문단의 “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와 대응되므로 ⑤번의 내용은 “운동 시차”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29.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보기>가 2개 이상이므로 지문의 구조가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군!”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Excellent!

<지문과의 대응점>

(가) “다람쥐” => “운동하는 관찰자” / “잠자는 여우” => “정지된 물체”
따라서 (가)는 ‘운동시차’와 대응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게 대응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처럼 정확히 콕! 집어서 대응시킬 수는 없었더라도 운동시차를 제외한 ‘물체의 상대적 크기’,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중 하나에 대응될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과 같은 직선 원근에 대응시킬 수 없고,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물체의 상대적 크기”에 대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내용이므로 “동일한 물체”는 (나)의 “축구공”에 대응되고,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경우를 지우고, (나)는 “물체의 상대적 크기”에 해당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체의 상대적 크기의 경우 나머지 두 경우와 달리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결기울기”를 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죠.

사실 조금만 꼼꼼히 읽었더라도 (나)의 축구공은 한 개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분포”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원문에는 “상대적 크기”에 관한 직접적인 예시도 있었으나 출제자가 29번 문항을 겨냥해 해당 사례를 원문에서 빼버렸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혼동을 제시하기 위한 기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문항의 “뉘앙스”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그냥 (정답)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운동 시차는 단안 단서이므로 부적절합니다.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가)는 운동 시차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러분의 눈은 3문단으로 향했을 것이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④ (나)는 결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축구공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기울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물체의 상대적 크기의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던 알은 수준의 함정일 뿐입니다. 패턴을 기억하세요!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 “**물체의 상대적 크기**”도 단안 단서이므로 한쪽 눈을 가리더라도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끝-